

계명대 행소박물관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 마련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일환,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순회전시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전 진행, 5월에는 주말에도 개관

기사입력 2022-05-03 15:58:18 | 최종수정 2022-05-08 16:45:34 | 강승탁 기자 | stking12@newdailybiz.co.kr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려음(高麗飲),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명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고려음(高麗飲),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마련했다.

행소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국고 사업에 선정돼 국립광주박물관 및 계명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특별전을 연다

4월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리는 특별전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의 순회 전시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

는 명품 청자 및 최근 발굴된 청자를 비롯해 행소박물관 및 계명문화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청자 100여 점을 전시해 실생활에 쓰인 청자의 차와 술그릇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명품 도자기를 관람할 기회로 영남과 호남지역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중요한 전시이다.

대학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의 명품 청자를 100점 가까이 전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시를 통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색과 문양뿐만 아니라 고려 사람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전시는 4개의 주제로 1부 '고려시대 차와 술 문화의 유행과 수입 도자기'에서는 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에 따른 차와 관련된 도구를 시작으로 새로운 음료 문화가 소개되어 유행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다양한 찻그릇 술그릇을 전시하고 있다.

2부 '고려청자, 문화를 마시다'에서는 고려 왕실과 귀족, 승려 그리고 문인들의 관심 속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차 문화와 함께 발전한 청자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는 12~13세기의 찻잔과 참외 모양 주전자, 차 찌꺼기를 담는 그릇인 타호 등 다양한 찻그릇을 전시한다.

마지막인 4부 '고려청자와 함께 묻히다'에서는 고려시대 무덤에 함께 묻힌 청자 찻그릇과 술그릇을 통해 당시 고려 사람들의 차와 술에 대한 생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 출토 청자와 백자, 안동 정하동 출토 청자 등을 전시한다.

김권구 행소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기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곡선과 색깔, 문양 등 미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고려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차를 만들어 마시고, 술을 담고 마시는 용도에 따라 발전한 청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찾으려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특별전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5월 한 달 동안에는 일요일도 개관한다.

또 특별전시는 가상현실(VR)을 구축해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

이 기사 주소: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2/05/03/2022050300213.html>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계명대 행소박물관,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

박정수 기자 kiho3217@naver.com 입력 | 수정 2022.05.03 14:31

4월 29일 ~ 6월 30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순회 전시



계명대 행소박물관이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올해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국고 사업에 선정돼 오는 6월 30일까지 '고려음(高麗飲),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3일 계명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 청자 및 최

근 발굴된 청자를 전시한다.

또 계명대 행소박물관 및 계명문화대가 소장하고 있는 청자 100여점을 전시해 실생활에 쓰인 청자의 차와 술그릇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명품 도자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로 영남과 호남지역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중요한 전시다.

대학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의 명품 청자를 100점 가까이 전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시를 통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색과 문양뿐만 아니라 고려 사람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김권구 행소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고려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차를 만들어 마시고, 술을 담고 마시는 용도에 따라 발전한 청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찾으려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 동안 전시 연계 특강으로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의 ‘고려시대 청자와 차 문화’, 김윤정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의 ‘고려 왕실의 연례 문화와 청자 주기(酒器)’,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의 ‘고려청자의 본질과 상징’이 진행된다.

또 전시 연계 체험으로 ‘꿈과 희망을 그리다-도자기 문양 컵 만들기’도 운영된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공휴일 포함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일요일도 개관한다. 특별전시는 가상현실(VR)을 구축해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된다.

계명대,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 열어

머니투데이 | 권태혁 기자

2022.05.03 11: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0310437496153&type=1>

기사주소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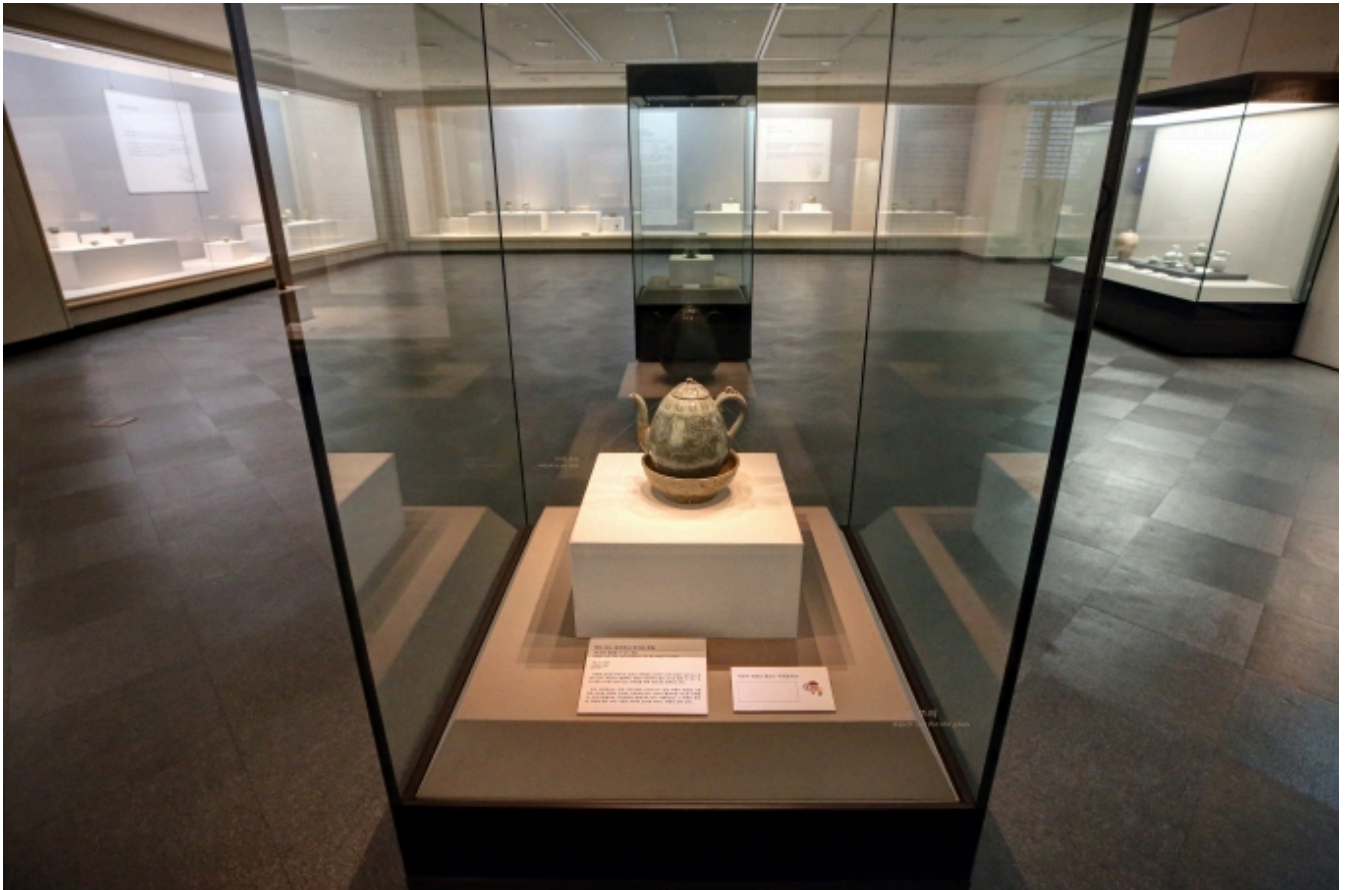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내달 30일까지 국립 광주박물관, 계명대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고려음(高麗飮),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을 선보인다.

앞서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국고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의 순회전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 청자와 최근 발굴된 청자를 비롯해 계명대 행소박물관 및 계명문화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청자 100여 점을 전시한다. 실생활에 쓰인 청자의 차와 술그릇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명품 도자기를 관람할 수 있고 영남과 호남지역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중요한 전시다. 대학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의 명품 청자를 100점 가까이 전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색과 문양뿐만 아니라 고려 사람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전시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1부 '고려시대 차와 술 문화의 유행과 수입 도자기'에서는 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에 따른 차 관련 도구를 다룬다. 새로운 음료 문화가 유행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다양한 찻그릇 술그릇을 전시하고 있다.



2부 '고려청자, 문화를 마시다'에서는 고려 왕실과 귀족, 승려 그리고 문인들의 관심 속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차 문화와 함께 발전한 청자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다. 12~13세기의 찻잔과 참외 모양 주전자, 차 찌꺼기를 담는 그릇인 타호, 차와 함께 먹는 다식을 올려놓던 청자 투합 등 다양한 찻그릇을 전시한다.

3부 '고려청자, 예술에 취하다'에서는 따뜻하게 마시던 술에서 차갑게 마시는 술로 변화하면서 청자 술그릇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청자 주자와 받침, 병, 매병, 술잔과 받침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고려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한 고려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가 새겨진 청자 주전자와 글씨가 새겨진 의례용 술잔을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4부 '고려청자와 함께 묻히다'에서는 고려시대 무덤에 함께 묻힌 청자 찻그릇과 술그릇을 통해 당시 고려 사람들의 차와 술에 대한 생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 출토 청자와 백자, 안동 정하동 출토 청자 등을 전시한다.

김권구 행소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기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곡선과 색깔, 문양 등 미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고려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차를 만들어 마시고, 술을 담고 마시는 용도에 따라 발전한 청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찾으려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 동안 전시 연계 특강으로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의 '고려시대 청자와 차 문화', 김윤정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의 '고려 왕실의 연례 문화와 청자 주기(酒器)',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의 '고려청자의 본질과 상징'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연계 체험으로 '꿈과 희망을 그리다-도자기 문양 컵 만들기'도 운영된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일요일도 개관한다. 또한 특별 전시는 가상현실(VR)을 구축해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소박물관 학예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명대 행소박물관, '고려음(高麗飮),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

기사입력시간 : 2022/05/03 [14:55:00]

진예솔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진예솔 기자=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고려음(高麗飮),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명대 행소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국고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4월 29일(목)부터 6월 30일(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및 계명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특별전 진행에 나선다.



▲ 계명대 행소박물관,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 가져 (C) 계명대

이번 특별전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 청자 및 최근 발굴된 청자를 비롯하여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및 계명문화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청자 100여 점을 전시하여 실생활에 쓰인 청자의 차와 술그릇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명품 도자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영남과 호남지역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중요한 전시이다.

특히 대학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의 명품 청자를 100점(참고사항: 유물의 보험평가액: 약 95억) 가까이 전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시를 통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색과 문양뿐만 아니라 고려 사람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김권구 행소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기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곡선과 색깔, 문양 등 미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고려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차를 만들어 마시고, 술을 담고 마시는 용도에 따라 발전한 청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찾으려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특별전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전시 연계 특강으로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의 '고려 시대 청자와 차 문화', 김윤정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의 '고려 왕실의 연례 문화와 청자 주기(酒器)',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의 '고려청자의 본질과 상징'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연계 체험으로 '꿈과 희망을 그리다-도자기 문양 컵 만들기'도 운영된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e Haengso Museum of Keimyung University announced that it will hold a special exhibition under the theme of 'Goryeoeum (高麗飲), tea and alcohol culture in celadon'.

Keimyung University Haengso Museum is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hosted by the Korea University Museum Association. A special exhibition will be held jointly with the Gwangju Museum and Keimyung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This special exhibition is a tour of the special exhibitions held at the Gwangju National Museum, 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Gwangju National Museum, Daegu National Museum, and Chunc

heon National Museum, as well as the recently excavated celadon, as well as the Haengso Museum of Keimyung University and Keimyung University of Culture. By exhibiting about 100 pieces of celadon in the collection, you can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eladon used in real life as tea and alcohol vessels.

This exhibition is not only an opportunity to view luxury ceramics in Daegu and Gyeongbuk, but also an important exhibition in terms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Yeongnam and Honam regions.

In particular, it is unusual for a university museum to display close to 100 pieces of high-quality celadon from the National Museum (Note: the insurance value of relics: about 9.5 billion won). can take a peek at

Kim Kwon-gu, director of the Haengso Museum, said, "This exhibition aims to explore the functional aspects of celadon develop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making and drinking tea in the real life of the Goryeo people, away from the aesthetic study of the beautiful curves, colors, and patterns of the existing Goryeo celadon. I think it is meaningful in one point." He explained the meaning of this special exhibition.

In addition,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special lectures related to the exhibition were offered: 'Celadon and Tea Culture of the Goryeo Era,' by Nam-won Jang, Art History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Annual Culture and Celadon Cycle of the Goryeo Dynasty, and 'Celadon Cycle' by Professor Kim Yun-jung,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Convergence, Korea University, Kang Woo-bang, On the Hyang Korea. The 'Essence and Symbol of Goryeo Celadon' will be held by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Art History. In addition, as an exhibition-linked experience, 'Dreams and Hopes - Making Ceramic Pattern Cups' is also operated.

Admission to the exhibition is free, and it is open from 10 am to 5 pm from Monday to Saturday, including public holidays.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에 젖어보세요...행소박물관

입력 : 2022-05-03 10:59 | 수정 : 2022-05-03 10:59



▲ (계명대)계명대 행소박물관,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 가자

“고려음(高麗飲),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이 오는 6월30일까지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 청자 및 최근 발굴된 청자를 비롯하여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및 계명문화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청자 100여 점을 전시하여 실생활에 쓰인 청자의 차와 술그릇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4개의 주제로 1부 '고려시대 차와 술 문화의 유행과 수입 도자기', 2부 '고려청자, 문화를 마시다', 3부 '고려청자, 예술에 취하다', 4부 '고려청자와 함께 문히다' 등이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전시 연계 특강으로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의 '고려시대 청자와 차 문화', 김윤정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의 '고려 왕실의 연례 문화와 청자 주기(酒器)',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의 '고려청자의 본질과 상징'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연계 체험으로 '꿈과 희망을 그리다-도자기 문양 컵 만들기'도 운영된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공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5월 한 달 동안에는 일요일도 개관한다. 또한, 특별전시는 가상현실(VR)을 구축하여 온라인 전시로도 공개된다.

김권구 행소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기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곡선과 색깔, 문양 등 미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고려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차를 만들어 마시고, 술을 담고 마시는 용도에 따라 발전한 청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차우려 한 전시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국립·대학박물관 명품 도자기 100여 점 전시...계명대 행소박물관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

✎ 구아영 | ⓒ 승인 2022.05.08 15:19

6월30일까지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의 컬래버 작품||보험평가액 약 95억에 달해...4개의



▲ 계명대 행소박물관의 '고려음,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시에 참여한 관람객의 모습.

대구·경북지역에서 명품 도자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 다음달 30일까지 '고려음(高麗飲),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국고 사업에 선정돼 진행됐다.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의 소장품을 함께 전시한 이례적인 행사로, 영남과 호남지역의 문화교류 차원에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 청자 및 최근 발굴된 청자를 비롯해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및 계명문화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청자 100여 점을 볼 수 있다. 전시된 유물들은 보험평가액이 약 95억에 달한다.

전시는 4개의 주제로 열린다.

1부 '고려시대 차와 술 문화의 유행과 수입 도자기'에서는 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에 따른 차와 관련된 도구를 시작으로, 새로운 음료 문화가 소개돼 중국에서 수입한 다양한 찻그릇, 술그릇을 전시하고 있다.

'고려청자, 문화를 마시다' 주제의 2부에서는 고려 왕실과 귀족, 승려, 문인들의 관심 속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차 문화와 함께 발전한 청자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다.

12~13세기의 찻잔과 참외 모양 주전자, 차 찌꺼기를 담는 그릇인 타호, 차와 함께 먹는 다식을 올려놓던 청자 투합 등을 보여준다.

3부 '고려청자, 예술에 취하다'에서는 따뜻하게 마시던 술에서 차갑게 마시는 술로 변화하면서 청자 술그릇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청자 주자와 받침, 병, 매병, 술잔과 받침 등을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4부 '고려청자와 함께 묻히다'에서는 당시 고려 사람들의 차와 술에 관한 생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 출토 청자와 백자, 안동 정하동 출토 청자 등을 보여준다.

김권구 행소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기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곡선과 색깔, 문양 등 미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고려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차를 만들어 마시고, 술을 담고 마시는 용도에 따라 발전한 청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찾으려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무료. 전시는 공휴일을 포함해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관람할 수 있다.

5월 한 달 동안에는 일요일도 개관한다.

문의: 053-580-6992~3.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구아영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명대 행소박물관, '고려음(高麗飮),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 특별전 열어

✎ 백운용 기자 | ⓒ 승인 2022.05.04 13:02



사진제공=계명대학교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국고 사업에 선정되어 국립광주박물관 및 계명대학교 총동창회와 공동으로 4월 29일(목)부터 6월 30일(일)까지 “고려음(高麗飮), 청자에 담긴 차와 술 문화”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특별전의 순회전시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 청자 및 최근 발굴된 청자를 비롯하여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및 계명문화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청자 100여 점을 전시하여 실생활에 쓰인 청자의 차와 술그릇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명품 도자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로 영남과 호남지역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중요한 전시이다. 대학박물관에서 국립박물관의 명품 청자를 100점(참고사항: 유물의 보험평가액: 약 95억) 가까이 전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시를 통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색과 문양뿐만 아니라 고려 사람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전시는 4개의 주제로 1부 '고려시대 차와 술 문화의 유행과 수입 도자기'에서는 차를 만들어 마시는 방법에 따른 차와 관련된 도구를 시작으로 새로운 음료 문화가 소개되어 유행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다양한 찻그릇 술그릇을 전시하고 있다.

2부'고려청자, 문화를 마시다'에서는 고려 왕실과 귀족, 승려 그리고 문인들의 관심 속에서 전성기를 맞이한 차 문화와 함께 발전한 청자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는 12~13세기의 찻잔과 참외 모양 주전자, 차 찌꺼기를 담는 그릇인 타호, 차와 함께 먹는 다식을 올려놓던 청자 투합 등 다양한 찻그릇을 전시한다.

3부'고려청자, 예술에 취하다'에서는 따뜻하게 마시던 술에서 차갑게 마시는 술로 변화하면서 청자 술그릇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청자 주자와 받침, 병, 매병, 술잔과 받침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고려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였던 고려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시가 새겨진 청자 주전자와 글씨가 새겨진 의례용 술잔을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4부 '고려청자와 함께 묻히다'에서는 고려시대 무덤에 함께 묻힌 청자 찻그릇과 술그릇을 통해 당시 고려 사람들의 차와 술에 대한 생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동해 삼화동 고려고분 출토 청자와 백자, 안동 정하동 출토 청자 등을 전시한다.

김권구 행소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기존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곡선과 색깔, 문양 등 미학적 연구에서 벗어나 고려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차를 만들어 마시고, 술을 담고 마시는 용도에 따라 발전한 청자의 기능적인 측면을 찾으려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특별전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전시 연계 특강으로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의 '고려시대 청자와 차 문화', 김윤정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의 '고려 왕실의 연례 문화와 청자 주기(酒器)',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의 '고려청자의 본질과 상징'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연계 체험으로 '꿈과 희망을 그리다-도자기 문양 컵 만들기'도 운영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